홍수패턴

(창7:1~24)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홍수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홍수 패턴'

법의학(法醫學)이라고 아시죠?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로 부검입니다.
시체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면서 살인범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오늘 홍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의학의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익사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익사체는 물속에서 발견된 모든 시체를 익사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익사체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느냐? 아니면 물 바깥에서 죽임을 당해서 물속으로 던져졌느냐를 구분해 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살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실수를 했다든지 물에 뛰어들었다든지 파도에 휩쓸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장소에서 죽었기에 여기서 발견 되었느냐를 알아내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죽었을 당시 물속에 있었던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던져지면 폐나 기도 속으로 물이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신체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오늘 본문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것들이 홍수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새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땅이 있으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땅에 내려와서 쉬었다가 날아오르기도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날아만 다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호흡을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 속에 잠가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패하고 육체가 되어버렸으니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들짐승과 가축과 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그것까지 다 죽였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죽였어요. 대홍수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히틀러는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학살한 것이라서 입장은 다르지만, 역사상 하나님처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왜 동식물까지 다 죽였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꼭 홍수를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러워진 지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없애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내가 지은 모든 지면의 생물들과 사람을 비롯해서 들짐승과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없어져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면 한 순간에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홍수를 통해서 고통가운데 사람은 죄 값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다른 동물도 죽고 식물까지도 광합성을 못하니까 다 죽은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다 죽여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만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는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들에 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붙드는데, 그게 바로 홍수 패턴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방주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방주 패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면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실 때에 하나의 패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냐? 방주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방주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많이 승선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소수의 특공대가 타고 있는 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사람을 태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소수를 보존하고 있다가 그 소수를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소수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홍수 패턴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패턴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방주 패턴이 성립되려면 언제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 패턴은 소수의 사람들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패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매 단계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주인공들의 마음속에서 홍수가 경험 된 자들이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색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의 세계에서 홍수가 경험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노아가 살고 있던 자연계와 생태계와 물질계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차원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미 노아는 자기의 심령, 마음의 세계에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도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하고, 몸이 누군가와 손을 붙잡듯이 마음도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을 수 있고, 마음의 활동이 있고,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홍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홍수를 경험한 그 사람이 방주 패턴을 통한 구원역사의 진행에서, 매 단계마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당사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패턴이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역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왜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의문이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1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는데, 암수 일곱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암수 일곱 쌍을 말하는지 암수 셋씩에 한 마리를 더한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여기에서 일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8장의 20절에 가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끝이 나고 배에서 내려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연관되어서 일곱씩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주변 환경 전체를 다 멸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것은 인간이 더러워진 것이지 짐승과 생태계, 자연환경이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그리고 노아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공장이 있었습니까? 북경에서처럼 스모그가 있었습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런데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왜 더러워졌겠습니까?
우리가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살리면 좋습니다.
책꽂이에는 책이, 장롱에는 이불과 옷이, 목욕탕에는 세면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청결한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고, 빈 공간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마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마음 안에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육체를 들여놓기도 하고, 그 육체를 통해서 애인을 만나면 애인을 들여놓고, 육체를 통해서 돈을 만나면 돈을 집어넣고, 육체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면 자녀를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 집어넣었지만 다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외에 육체로부터 자연 생태계 전체가 다 인간의 마음이 닿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닿으면서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진 겁니다.
자녀를 마음에 들이면 자녀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닿으면서 더러워지고, 돈도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돈과 닿으면 돈이 더러워지고 맙니다.
이제 김장철입니다. 이웃집에 가서 품앗이로 김장을 도와줍니다. 김장을 하는데 김장이 너무 맛있게 담가졌어요. 그래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다가 김치를 파카 주머니에 몰래 훔쳐왔어

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젓갈 냄새가 나고 양념이 잔뜩 묻은 김치를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김치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리털 파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도 끝장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마음에 집어넣는 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김장 김치를 오리털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업체가 있어서 그 사업체를 마음에 집어넣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마음에 집어넣었다면 그건 김장 김치를 오리털 파카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태계, 자연세계 안에서 관심을 갖고 마음 안에 들여놓고, 저건 내가 가져야지, 저건 내가 버려야지 하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당대가 어떤 당대입니까?
아직 율법의 기준이 없을 때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제시 되지 않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의인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인간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완전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의인데, 그걸 인정 한다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이 가서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하는 것인데, 아담 이후에 이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게 자꾸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에게 뺏긴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판단하는 것이 다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얻어맞고 공회회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환경입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환경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없어지라고 하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홍수를 통해서 이 더러움을 씻으셔야만 됐을까요?
여기서 홍수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물리적인 차원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홍수가 끝난 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리적인 홍수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홍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각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각시키시려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17~19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19절에서는 “물이 더욱 땅에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매 산들이 다 잠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오 규빗’은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십오 규빗이면 한 7미터 되거든요. 7미터 오르니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고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산의 봉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7미터 위로 물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 7미터 높은 두께의 물로 뒤덮여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맨 밑에 바닷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노아의 방주가 산 중턱에 만들었는지 40일 홍수의 중간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뜬 것이 아니에요.
산 중턱에 배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바보 천치로 알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물에 떠오르면서 산이 잠기고 작은 산봉우리가 잠겨서 없어지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없어졌을 때에, 지면에 붙은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뭐가 남습니까?
하늘만 남습니다. 대상이라고는 하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던 마음을 끌었던 모든 대상들은 다 잠겨버리고 맙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잠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홍수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차오르다가 가장 높은 봉우리의 7미터 위로 물이 덮여 버리니까 방주가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지면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관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물질적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마음이 관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관계해야 하는 것들 사업, 자식, 건강, 직장, 권사님이나 집사님과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의 높이로 보면 어떤 것이 1등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1등 봉우리이겠습니까?
엄마들한테는 자식일까요? 사업하는 아빠들한테는 사업 문제가 1등 봉우리일까요?
어쨌든 마음의 세계에 마음의 관심의 높이와 관심의 크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물에 잠겨서 오직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최고의 봉우리가 다 잠긴 다음에 그 수면 위에서 관계 할 대상은 하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상태가 경험된 사람들이 바로 노아이고 노아의 방주에 탄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사랑으로 권면했을 수도 있고, 비난했을 수도 있고, 조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온 지구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갈 때에 이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패턴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아직도 방주에 탄 사람의 숫자만큼 정금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더 간추려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많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교계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지면에 붙어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세계에 홍수가 일어나서 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오직 하늘 밖에 안 남은 상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공대로 채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늙은 노새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정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마른 우물에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 죽이려고 했어요. 흙을 막 우물에 부었습니다. 한참을 붓고 났더니 노새가 이만큼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노새가 꾀는 조조 같아서 주인이 붓는 흙을 몸으로 털어버리면서 흙이 발판이 되어서 위로 위로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덮이고 덮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마음의 대상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만 듣고 산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향해가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몇 백 명, 몇 천 명 씩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방주 패턴에 역사에 참여할 자들이 없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발견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상에서 내 마음의 관심을 빼앗는 모든 대상들이 물에 잠겨 버리고, 오직 수면 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대상인 상태가 날마다 반복되어서 경험되는 사람들이 홍수의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 이미 노아는 물리적 차원의 홍수 이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이런 홍수를 경험하면서 오직 홍수의 수면 위에서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전체가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의 패턴을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한 자들을 간추려 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홍수 패턴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서 내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홍수를 만나서 내 마음으로부터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버리고 덮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관심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홍수를 몰고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함을 통해서 홍수 패턴이 날마다 내게서 일어나고, 그 홍수의 수면 위에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이 지상의 몸이 움직여가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홍수 패턴이 내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지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